

Russia and Japan in Agreement on Natural Gas Deal

러시아와 일본의 천연 가스 거래 협약

Gazprom, Russia's state-controlled gas monopoly, signed an accord on September with the government of Japan to move forward with plans for the construction of a \$13 billion natural gas terminal here that would propel the Kremlin's ambitions to multiply its business and trade ties in the Far Ea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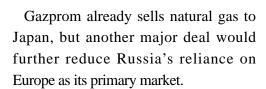
러시아의 국영 가스 독점회사 Gazprom사는 지난 9월 일본 정부와 130억 달러 규모의 천연 가스 터미널 건설 계획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를 통해서 극동에서의 사업 확장과 무역 증대를 꾀하는 러시아 정부의 야망을 엿볼 수 있다.

While the ultimate deal still hinges on reaching an agreement on the price Japan will pay for the natural gas, the accord is a crucial step toward increasing Russian energy exports at a time when Japan is eager to find alternatives to its largely shuttered, and politically embattled, nuclear power industry.

아직 일본이 러시아에 지불하게 될 요금의 가격 책정이라는 단계가 남기는 했으나, 이 협정은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증가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현재 일본은 원자력 발전 폐기에 따라 대체에너지 찾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The agreement was signed by Aleksei Miller, the chairman of Gazprom, and Ichiro Takahara, a senior Japanese trade official, on the sidelines of the annual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summit meeting, which is being held in Russia for the first time.

이 협정은 Gazprom사의 대표이사인 Aleksei Miller와 일본 무역성의 Ichiro Takahara가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서밋 연례 회의에서 서명하였다.



In a statement Mr. Miller said that the Asia-Pacific market was "the most capacious in the world" and that within the next few years, sales by Gazprom to Asia would exceed its sales in Europe, where the company fills roughly a quarter of the Continent's demand.

At the economic summit meeting, officials said that the 21 members of the economic group, representing Pacific nations from Asia and the Americas, had reached an agreement to prevent any ban on the export of grains or other food products that could lead to rising prices and social unrest.

A ban on grain exports by Russia in 2010 was widely viewed as contributing to a global spike in prices, and it raised doubts about Russia as a reliable supplier of agricultural products. Severe droughts in the United States and parts of Russia this year have renewed fears of increases in food prices.

President Vladimir V. Putin of Russia has said there will be no export ban th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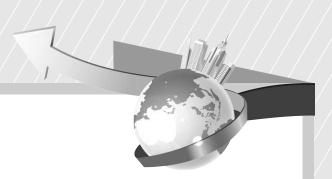
Gazprom사는 이미 일본에 천연 가스를 수출 하고 있기는 하나 이번 협약으로 인해서 그동안 집중하고 있었던 유럽 시장의 비중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Miller는 어느 보고서에서 아시아-태평양이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말하며, 자사의 아시아 수출량이 유럽 수출량을 수 년 이내에 제칠 것이며, 그 양은 아시아 대륙 수요의 4분의 1을 충족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회의에 참가한 관계자들은 태평양에 위치한 아시아와 아메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21개의 회원국들이 가격 상승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곡물과 기타 식량 자재의 수출 금지를 방지하는 협정에도 동의하였다.

2010년에 있었던 러시아의 곡물 수출 금지는 세계적인 곡물 가격 상승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신뢰할 수 있는 농작물 공급국으로서의 러시아의 역할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였고, 올해 있었던 미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의 극심한 가뭄은 식량 가격 상승에 대한 두려움을 상기시켰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올해에는 곡물 수출 금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전문가들은



year, and experts say that solid harvests in other parts of the world, including India, should help avert a crisis. Mr. Putin, as the conference host, had set food security as a top item on the agenda. 인도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작물 수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푸틴은 회의의 호스트 로서, 식량 문제를 최우선적인 협의사항으로 상정하였다.

Officials said they had also reached an accord to reduce tariffs on products related to 54 technologies deemed environmentally friendly - fulfilling a goal set at the economic conference last year.

관계자들은 작년 회의에서 언급된 사항이었던 친환경 기술 54개에 대한 관세 감세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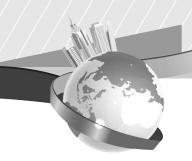
Among the so-called green-technology items to benefit from the tariff reductions is equipment used for generating renewable energy, like solar and wind power, as well as products related to recycling and wastewater treatment. Under the agreement, customs duties could be no more than 5 percent by 2015.

친환경 기술 아이템 중에는 태양열발전과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관련 장비들과 폐수처리와 재활용 관련 장치들도 포함되어 있다. 협정에 따르면 관세는 2015년까지 5%를 넘을 수 없게 조정될 예정이다.

One development being celebrated here in Vladivostok is Russia's entry last month into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making it the last major world economy to join the group, which establishes global norms and provides mechanisms to settle disputes.

러시아는 지난 달 주요 경제 강국으로는 마지막으로 국제 표준과 분쟁 조정 기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였다.

But even as Secretary of State Hillary Rodham Clinton praised her Russian hosts for this development, noting that American exports "could double or even 미국의 국무부 장관 Hillary Clinton은 위와 같은 사항들로 인하여 러시아로의 미국의 수출이 2~3배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유독 국유 사업 분야에서 좀처럼 사라



triple" as a result, she also criticized lingering protectionist policies, especially favored treatment of state-owned businesses.

Her comments were a clear rebuke of Russia and China, both of which maintain large state-controlled companies and sovereign wealth investment funds. 지지 않는 러시아의 보호주의 정책에 관해서는 비판을 가하였다.

그녀가 언급한 내용들은 거대한 국영 기업들은 운영하고 국부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공개적 비난으로 해석된다. KEA